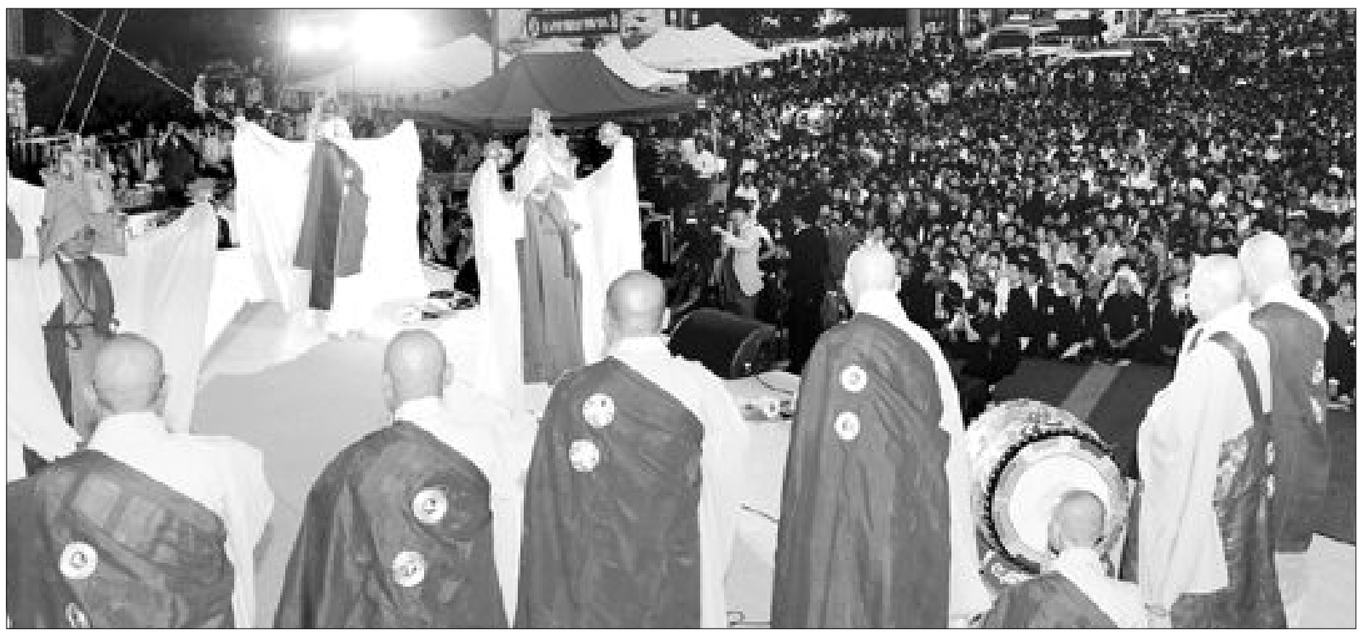


28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에서 스님들이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을 펼치고 있다. 종교단체 추모의식은 불교, 원불교, 기독교 순으로 진행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금남로 '촛불의 바다'

## 옛 도청앞 1만여명 눈물의 추모제 … 노 前 대통령 넋 기려

### 전남 곳곳도 추모 열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엿새째인 28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인근에는 1만여명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추모제가 열려 고인의 넋을 기렸다.

특히 이날 시민들은 광주·전남 곳곳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막바지' 추모 행렬에 동참했으며, 추모제가 끝난 새벽까지도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고인과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 했다.

28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광주·전남추모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추모식에는 1만여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다.

이날 행사는 고인에 대한 약력 및 경과보고에 이어 안성례 추모위 고문의 추도사, 김준태 시인의 추모시, 불교·원불교·기독교 등 종교계의 추모의식 등이 이어져 시민들을 숙연케 했다.

추모객들은 "고(故) '바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도하며"란 제목의 추도사가 낭독된 데 이어 김준태 시인이 고인을 기리는 추모시를 읽어내려가자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오늘은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을 고운 하늘로 보냅니다"라는 마지막 구절에선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어 추모객들은 '아침이슬'을 한목소리로 부른 뒤 자유발언대에 올라 노 전 대통령을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 등을 쏟아냈다. 또 무대 위로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상영되자 고인의 행적과 광주와의 인연 등을 되돌아보며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밤 9시께는 옛 도청을 중심으로 주택가와 상가 등의 전등이 모두 꺼진 가운데 옛 도청을 중심으로 한 광주지역이 온통 '촛불 바다'를 이뤘다. 추모제를 찾은 시민들의 촛불이 한데 모여 암흑 속에 잠긴 광주의 도심을 환하게 비춘 것이다.

추모제의 분위기는 마지막 행사인 홍등 날리기에서 절정을 이뤘다. 이날 추모위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홍등 50개를 하늘로 날려보내며 고인을 애도하고 민족화합을 기원했다.

전남지역 주요 시·군에서도 추모 열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이날 밤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목포역 광장에서 추모제를 연 것을 비롯, 노사모 여수시지부와 민주당순천사무소가 각각 여수시 여서동과 순천 조은프라자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고인을 애도했다. 나주에선 나주 농민회 사무실 앞에서 추모제가 열렸으며, 광양과 해남 등에서도 뜨거운 추모 열기를 보였다.

진도씻김굿 보전회는 이날 진도군 철마광장에서 4시간 동안 노 전 대통령의 넋을 기리는 씻김굿을 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경찰, '제2의 촛불' 확산 방지 고심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광주·전남대학생연합, 노동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을 전후해 잇따라 추모집회와 행사를 예고,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모 열기가 '제2의 촛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대련 소속 광주·전남대학생연맹은 28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대학생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 전 대통령 추모행사를 마친 뒤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릴 '이명박 정권에 맞선 대학생 행동의 날'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3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삼복서점 앞길에서 화물연대 고(故) 박종태 지회장 투쟁 승리 결의대회 및 현 정부 심판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진보연대 등도 같은 날 동구 금남로에서 현 정부 규탄 촛불 문화제를 연 뒤 화물연대 등과 연대 집회를 갖는다.

이 밖에도 오는 31일까지 목포와 여수, 광양, 해남 등에서 시민·사회단체, 노사모 등을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가 자칫 '제2의 촛불사태'로 변이될 가능성을 우려해 여론 파악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각종 시민 행사가 마련된 '6·10 항쟁'이 추모 열기와 맞물리면서 지난해 촛불 집회와 같이 '제2의 촛불사태'로 이어질 것을 우려,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숫자로 본 노 前 대통령 '광주합동분향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가 29일 영결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다. 그의 육신은 볼 수 없지만 탈(脫) 권위와 지역주의의 벽에 도전했던 고인의 뜻은 조문객들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았다. 옛 전남도청에 마련된 '광주시민합동분향소'의 96시간(4일)을 숫자로 정리했다.

**0**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에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설치된 것은 지난 25일 새벽 0시께였다.

**1** 옛 전남도청 분향소는 광주·전남지역에 마련된 28곳의 공공기관 및 민간운영 분향소 가운데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몰렸다.

**2** 분향소를 두 번 찾은 조문객. 옛 전남도청을 찾아 다시 한 번 고인의 넋을 기리고 영면을 기원하는 조문객 수도 상당했다.

**6** 분향 기간. 광주시민합동분향소는 오는 31일까지 조문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50** 나흘간 정치인·사회단체·자영업자·시민 등이 애도의 표시로 보낸 화환 수.

**80** 하루 평균 80여 명의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나서 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을 안내하고 근조 리본을 나눠주며 주변을 정리했다.

**300** 추모 행렬은 옛 광주지방노동청을 지나 광주 D학원 맞은편까지 300m에 달했다. 그러나 새치기나 실랑이는 전혀 없는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줄이었다.

**3,000** 분향소에 놓여진 국화는 3천 송이였다.

**6,000** 노란 만장띠 수. 조문객들은 분향소 주변 거리에 고인의 염원이었던 탈 권위와 지역주의, 국민대통합과 화합을 바라는 메시지를 담은 노란 만장 띠를 매달았다.

**70,000** 원하는 조문객에게 무료로 나눠준 검은 근조(謹弔) 리본 수.

**130,000** 28일까지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은 13만 명. 사람들의 간격을 1인당 1m로 잡으면 130㎞다. 이는 광주에서 전주까지의 거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성적 안좋다" 부모 꾸중에 중학생 자매 아파트서 투신

### 광주 광산구 신촌동

28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D아파트 앞 주차장에 광주 J중학교 3학년 안모(14·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양과 안양의 여동생(12·1학년)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주민 정모(43)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갑자기 '쿵' 소리가 들려 베란다 밖을 내다봤는데 여자아이 두 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자매의 부모는 경찰에서 "이틀 전 작은 아이가 학업 성적과 관련해 거짓말을 해 큰 아이까지 함께 불러 혼을 좀 냈다"며 "다음날 도서관에 간다며 둘이 함께 집을 나섰는데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생 김양은 전날 하굣길에 "내일 학교에 못 나올 수도 있다"고 친구들에게 말했으며, 맞벌이를 하는 부모가 귀가하기 전 언니와 함께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매가 발견된 아파트의 13~14층 사이 복도에 이들의 가방이 놓여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함께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앵속 재배 무더기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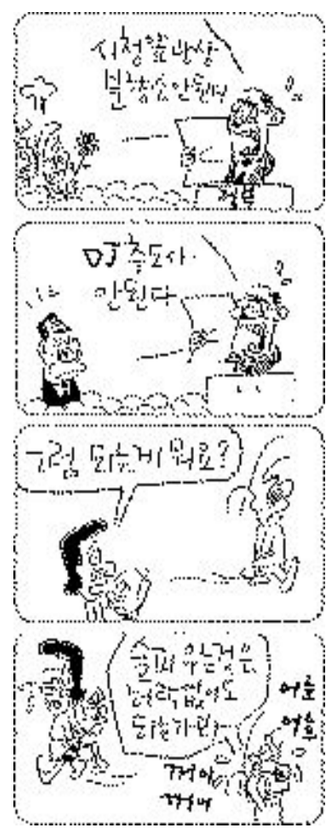
여수해양경찰은 28일 앵속(일명 양귀비) 재배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박모(56)씨 등 24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앵속 440여그루를 압수했다.

박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께 광양시 광양읍 자신의 집 텃밭에서 앵속 48그루를 재배해오다 적발됐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나우진짬

〈7815〉 김종두




### 화순 공장 외국인 노동자 숨져

28일 오전 8시35분께 화순군 한천면 한 스티로폼 생산공장에서 김 양식장 부표(浮標)를 만들던 K(28·스리랑카)씨가 주형 틀에 끼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K씨는 지름 50㎝의 부표를 들고 창고로 가던 중 주형 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는 동료의 모습을 보고 도와 주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 카지노 고수익 미끼 55억 가로채

**쌍나팔**

○…광주남부경찰은 28일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수백명으로부터 5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현모(3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 회사 홈페이지에 "사이판에 6성급 카지노 호텔을 신축하기로 현지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거짓 홍보해 지난해 12월부터 80명에게 회사주식 20만주를 13억4천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356명으로부터 55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

○…조사 결과 현씨를 도와 투자자 모집에 나선 서모(52)씨는 사람들에게 "1억을 투자하면 호텔 영업 첫 달부터 매달 6천만원을 주겠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호텔 건립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판명. /김형호기자 khh@